# 오차대에서의 한 학기

경북대학교
권혜지
k2490041

오차대에 온 이후로 벌써 3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은 역시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학 기간을 연장하고 싶지만 모교에서의 졸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애석하기만 합니다.

제가 교환 유학에 있어 오차대를 선택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여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학교의 생활은 남녀 공학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차대의 분위기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학업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젠더학 세미나가 주기적으로 주최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도 허가하는 등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라는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둘째로 도쿄라는 대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쿄에 대한 저의 인상은 다양성으로 가득한 활기찬 도시라는 것입니다. 교내에서도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과제 위주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시험이 평가 기준이 되는 수업이 대부분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늘 아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란 통계량의 종류에 따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학문인 만큼 오차대에서 다양한 과제를 통해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유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유학 생활 도중에 병이 악화되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기와라 선생님께 학생 상담실을 소개 받았고 상담가분들과

얘기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기와라 선생님과 상담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LE 선생님과 연구실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LE 선생님 또한 언제나 제 상태를 살펴 주셨고 다양한 행사에 저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의 모든 학생들도 저를 환영하여 맞이해준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차대에서 유학을 한다고 해도 이 연구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와칸의 직원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대학 생활에 있어 최고의 기숙사 생활이었습니다.

오차대에서 행복했던 한 학기,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お茶の水女子大学
Ochanomizu University